

## “ 빈 항아리를 깨뜨려라 ”

### ■ 이종윤 원로목사

-한 덩이 보리떡 되어-

자신을 보리떡에 비꼴다고 해서 흥분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인다. 출신이 미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으로서 그것이 오히려 지당한 표현일 것이라고 감수하는 눈치다. 사실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바울 같은 대석학도 자기는 만산 전에 출생한 미숙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했다. 하물며 불탄 포도넝쿨 같고 타다 남은 부지깥이 같은 우리는 자신을 너무 평가 절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보리떡 한 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떡이 굴러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값진 금덩이는 진열장 속에 넣어 있기만 해도 보물의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보리떡은 그래서 쓴맛다. 굴러가야 한다. 가야할 곳을 찾아야 하고, 가야 할 시간에 굴러갈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 봐도 보리떡이 어설피게 금덩이 귀족인 안일을 흉내 내려는 것은 잘못이다.

굴러가는 보리떡은 미디안 적장의 장막을 전복시키는 폭탄이 된다. 기드온이 굴러들어가는 적진 속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백성들은 진멸되고 바알신상은 분쇄되었다. 한 덩이 보리떡 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부정이 타도되고 부패가 일소될 것이며 또 되어야 한다. 격에 맞지 않는 자만이나 안일도 금물이려니와 자학이나 자기 비하 또한 멀리해야 한다. 내 자신이 보리떡임을 자각하고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진을 계속할 때 우리의 주변에서 미디안적 모든 요소를 소멸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사능이 작은 보리떡을 통해서 오늘도 발사되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신다. 금그릇이나 놋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보리떡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일하신다.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두려워한다. 삼만 이천 명의 군대가 아닌 삼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메뚜기떼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무수한 약대를 거느린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기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였다.

기드온 군대의 손에는 칼과 활과 창 대신 햇불을 속에 감춘 흙 항아리와 승전을 알려줄 양각 나팔뿐이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일 뿐이다. 기드온은 항아리를 부심으로 햇불을 드러나게 하여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그 항아리가 부서지는 순간이 승리의 나팔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다. 항아리 자체의 값이 큰 것이 아니다. 더 가치 있는 항아리일수록 부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흙으로 된 항아리일 뿐 그 속의 보배를 드러내야 한다. 그 질그릇을 뒤어나게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해주는 걸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아끼지 말고 자기를 깨뜨려 그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자신을 부셔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내가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든가 자신이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지 순간순간 결단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기드온은 항아리를 부심으로 햇불을 드러나게 함으로 승리를 얻었다.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천 년 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가 많아서 역사를 변혁시킨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보리떡 같은 어부들이었지만 자신을 드러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되고 구원선이 되었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한국장로신문 [제 1337호] 2012년 9월 22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Mrs.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12:1-7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Rev. Euichang Kim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The Goal of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 Rev. Euichang Kim
* Hymn .....	488 ..... Congregation
* Benediction .....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역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교사</b> 전광혜(사이타), 이은준(해정, 양재성)이한주(카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해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형평)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리, 수비쓰, 일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록, 수문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민(홍성일)말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스카)
---	--

	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나의 비전과 사명 ”

■ 창 10:30, 12:3, 사 55:5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29:18)  
 하나님께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시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잡지 아니하면 병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1. 비전이 보이던 사명을 붙잡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따라오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시련과 연단을 견뎌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벧전 1:7). 믿음의 삶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간은 기도를 드림으로 몸과 마음에 가득 찬 찌꺼기들이 모두 녹아내릴 때일 것입니다. 금은 물리화학적 용융점이 1063℃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심령이 녹아내리는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는 몇 도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은 녹을지 안정, 우리의 녹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2. 목숨보다 귀한 사명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미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함” 을 강조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행 20:24)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별때와 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십 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계 2:10) 사명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살면 총성이요, 죽으면 영광” 이라는 삶을 삽니다. 총성은 시작부터 결말까지가 한결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계산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3.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  
 사명은 진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버린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살전 2:5) 이 같은 뜻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어야만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리고 사회와 국가도 건전해지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비전과 사명에 관한 가장 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라는 수단의 특성성, 목표의 보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서울교회 교우 여러분! 대한민국은 보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사 55:5) 대한민국은 이방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피차 아무런 역사적인 교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대한민국 땅에 오기도 전에 성경이 두 종류로 번역되리만큼 보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 민족은 평양 감옥에서 풀려나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평양 감옥문을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자랄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던 이 민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사명을 붙잡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진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사 49:9 ..... 인 도 자

찬 송 ..... 374(423) ..... 다 함 께

기 도 ..... 손태현 집사

성 경 ..... 막 6:45-46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왕 대 왕(王對王) ... 설 교 자

\* 찬 송 ..... 331(375)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김미영3 권사

성 경 ..... 삼하 6:1-1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궤”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현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김양언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홍혜란	윤주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 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라 하신지라(창 12: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 권사회 월례회 / 29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 사명자대회 준비 모임 / 29일(주) 오후 3시30분 후문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정철웅(일반외과), 이경진(신경외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세례식 신청 마감 / 10월 세례식이 10월20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10월 6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10월 13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0월 13(주) 오후 2시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p> <p>15. 정일웅 목사 약력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Th.D.), 총신대에서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로 30년을 섬기고, 총장 역임. 현 한국 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정일웅 목사님(한국 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 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35명	217명	186명	1,238명	135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9/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22일	헌 금	26,879,950	
	특별예배비		878,000
	찬양운영비		835,0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30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600,000
	세금과공과		3,389,420
	복리후생비		237,810
	통 신 비		720,090
	수도광열비		110,200
	차량유지비		596,700
	소모품비		147,94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624,400
	식당운영비		1,022,940
	합 계	26,879,950	10,084,300